

---

**‘한국증시의 도약을 위한’  
기업 밸류업 지원방안**

---

2024. 2. 26

유 관 기 관 합 동

# 목 차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주식시장 현황 .....	4
III. 기업 밸류업(Value-up) 프로그램 운영방안 .....	6
1.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.....	7
2.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....	10
3.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.....	12
IV. 향후계획 .....	14
[참고1]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.....	3
[참고2] 투자지표 설명 .....	15
[참고3] 도쿄거래소(JPX)의 시장체계 개편 및 후속조치 현황 .....	16
[참고4] 도쿄거래소(JPX)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권고 세부내용 ...	17

# I. 추진배경

- **(배경)** 생산성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,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시장 분절화(market fragmentation)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추세\*

※ (총요소생산성)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'90년대 2.1%p에서 10년대 0.6%p로 급감(한국은행, '23.12월)

※ (고령화) OECD 주요국 분석 결과, 노동연령 인구(30-64세) 1%p 감소시, 경제성장률 **0.38%p** 감소하는 추세(국회 예산정책처, '21.12월)

※ (분절화)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교역 감소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계 GDP **0.3~2.3% 감소** 가능성(IMF, '23.6월)

-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자본의 효율적 활용 및 생산성 향상이 긴요한 시점이며,
  - 국민들 입장에서도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을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필요성도 커진 상황
- 그러나 우리 기업의 자본효율성은 주요국 대비 낮고<sup>[표1, ROE]</sup>, 주가도 저평가<sup>[표1, PBR·PER]</sup>되는 경향 ⇨ [코리아 디스카운트](#)

[표1] 주요국 상장기업 10년 평균 ROE·PBR·PER('14~'23)

구 분	한국	대만	중국	인도	신흥 평균	미국	일본	영국	선진 평균
ROE(%)	<b>7.98</b>	13.58	11.48	12.80	11.08	14.85	8.34	9.62	11.55
PBR(배)	<b>1.04</b>	2.07	1.50	3.32	1.58	3.64	1.40	1.71	2.50
PER(배)	<b>14.16</b>	15.95	13.09	25.62	14.32	21.78	16.86	16.09	19.69

\* 출처: Bloomberg / \*\* 현행 PBR·PER 기준

➔ 규제개혁·기업혁신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(structural) 대응과 함께,

-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,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 구축 필요

□ **(경과)**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‘상생과 기회의 사다리’가 되도록, 3가지 방향의 일관된 제도개선 추진중

- ① **(인프라)**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대응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
- ② **(투자자)** 외국인 ID 폐지,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과 함께, 금투세 폐지, ISA 세제혜택 확대 등 세제개편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
- ③ **(기업)** 배당절차·물적분할·내부자거래·자사주 등 다양한 제도 개선\*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\* [배당절차] 배당권리자 확정 전 배당금 규모가 확정되도록 하여, “깜깜이 배당” 관행 개선  
[물적분할] 물적분할후 쪼개기 상장시 공시·상장심사 강화,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 
[내부자거래] 내부자 대규모 거래 사전공시 및 위반시 과징금 등 부과  
[자사주] 인적분할시 신주배정(자사주 마법) 금지 및 공시 강화

□ **(평가)** 우리 자본시장이 한단계 더 발전하려면,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노력이 중요하다는 평가\*

※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

- **(자본연, '23.2월)** 저조한 수익성·성장성, 미흡한 주주환원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분석
- **(OO증권, '24.1월)**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기업의 수익성·성장성
- **(△△증권, '24.2월)**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성, 성장성, 주주환원 모멘텀 등의 복합적 작용 필요

-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,
- 이를 시장에 적극 설명·소통함으로써 투자자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필요

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, “기업 스스로의 노력”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

< 기본방향 >

- ◇ 기업혁신·규제개혁 등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지속
- ◇ 이와 함께,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'상생과 기회의 사다리'가 되도록,
  - 「<sup>1</sup>공정·투명한 시장질서 확립, <sup>2</sup>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, <sup>3</sup>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」의 3대 축 중심으로 제도개선 추진중

< 자본시장 선진화 주요과제 >

대상	추진방향	세부과제
인프라	<sup>1</sup> <b>공정·투명한 시장질서 확립</b>	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② 불법 공매도 근절 ③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
투자자 (국민)	<sup>2</sup> <b>자본시장 접근성 제고</b>	① 외국인 ID 폐지, 영문공시 의무화 등 ②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③ 금투세 폐지, ISA 세제혜택 확대 등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지속 추진 ④ ATS 등 다양한 거래 시스템 구축 ⑤ IR 강화 / ⑥ 금융교육 지속·확대
기업	<sup>3</sup> <b>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</b>	① 일반주주 보호 강화* * 물적분할, 내부자거래 사전공시, 의무공개매수, 전환사채, 자사주, M&A 등 관련 제도개선 ② 배당절차 개선 ③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④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

기업혁신·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

“상생과 기회의 자본시장”

## II. 주식시장 현황

◇ 우리 주식시장은 양적성장에도, 기업의 낮은 자본 효율성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

□ (규모) 우리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 성장하며, 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인프라로 기능

① (시가총액) '23년말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,558조원으로 주요국 13위 수준

- GDP 대비 시가총액도 116.2%로,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성장

[표2] 주요국 시가총액(조원), GDP 대비 시가총액

구 분	신흥				선진		
	한국	대만	중국	인도	미국	일본	영국
'23년말 시총	2,558.2	2,679.7	12,349.8	5,437.0	65,334.9	8,077.9	4,000.1
(시가총액/GDP)	(116.2%)	(221.0%)	(57.1%)	(90.8%)	(166.4%)	(123.1%)	(113.2%)
연평균증가율	+7.0%	+8.4%	+11.0%	+13.9%	+8.5%	+3.1%	△2.6%

\* 출처: Bloomberg-IMF, 한국은 거래소, '23.12월말 환율로 환산(₩1,294.53/\$)

② (상장기업수) '23년말 한국 주식시장 상장기업 수는 2,558개로 주요국 중 7위 수준(미국·중국·인도·일본·캐나다·홍콩·한국 順)

- 최근 10년간 상장기업수 증가율도 주요국 중 높은 수준으로, 기업의 주식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시사

[표3] 주요국 상장기업수(개)

구 분	신흥				선진		
	한국#	대만	중국	인도	미국	일본	영국
'23년말	2,558	1,823	5,107	6,819	5,704	3,935	1,853
연평균증가율	3.5%	1.8%	7.5%	△0.1%	1.6%	1.4%	△3.0%

\* 출처: WFE, 영국('23.11월말)·인도('22.12월말)는 각국 거래소 / # 유가+코스닥(스팩·리츠 등 포함)

□ (시장평가) 그간의 양적 성장에도 순자산(PBR) 또는 순이익(PER) 대비 주가 수준은 **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**

① (PBR) '23년말 1.05, 10년 평균 1.04로, 순자산(자본)의 장부 가치 수준에서 주가 형성

\* 현행PBR 1미만 기업수('23년말 기준): 코스피 526개(65.8%), 코스닥 533개(33.8%)

② (PER) '23년말 19.78, 10년 평균 14.16으로, 주요국과 비교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 저평가

[표4] 주요국 현행 PBR·PER(배)

구 분		한국	대만	중국	인도	신흥 평균	미국	일본	영국	선진 평균
PBR	'23년말	1.05	2.41	1.13	3.73	1.61	4.55	1.42	1.71	3.10
	10년평균	1.04	2.07	1.50	3.32	1.58	3.64	1.40	1.71	2.50
PER	'23년말	19.78#	19.93	11.61	28.61	15.32	23.68	16.52	11.02	20.23
	10년평균	14.16	15.95	13.09	25.62	14.32	21.78	16.86	16.09	19.69

\* 출처: Bloomberg / # '23년의 경우, 분모(당기순이익)가 감소하며 높은 PER(시가총액/당기순이익) 기록

□ (저평가요인) 기업이 효과적으로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가 저평가(코리아 디스카운트)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분석

① (ROE) 지난 10년간 한국 주식시장 ROE(8.0%)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, 자본 생산성이 낮음을 시사

② (배당성향) 배당성향(10년평균 26.0%)도 낮은 수준으로,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활용도 미흡

[표5] 주요국 ROE·배당성향(%)

구 분		한국	대만	중국	인도	신흥 평균	미국	일본	영국	선진 평균
ROE	'23년말	5.2	12.5	9.8	12.8	10.8	17.7	8.6	15.9	14.3
	10년평균	8.0	13.6	9.3	13.8	11.1	14.9	8.3	9.6	11.6
배당성향	'23년	40.5#	57.6	30.5	64.7	45.2	37.1	36.2	42.5	42.2
	10년평균	26.0	55.0	31.3	38.5	39.6	42.4	36.0	129.4	49.5

\* 출처: Bloomberg / # '23년 분모(당기순이익)가 급감하며 높은 배당성향(배당금/당기순이익) 기록

➔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성장에 걸맞는 평가를 받으려면,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

### III. 기업가치 제고 지원을 위한 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」 운영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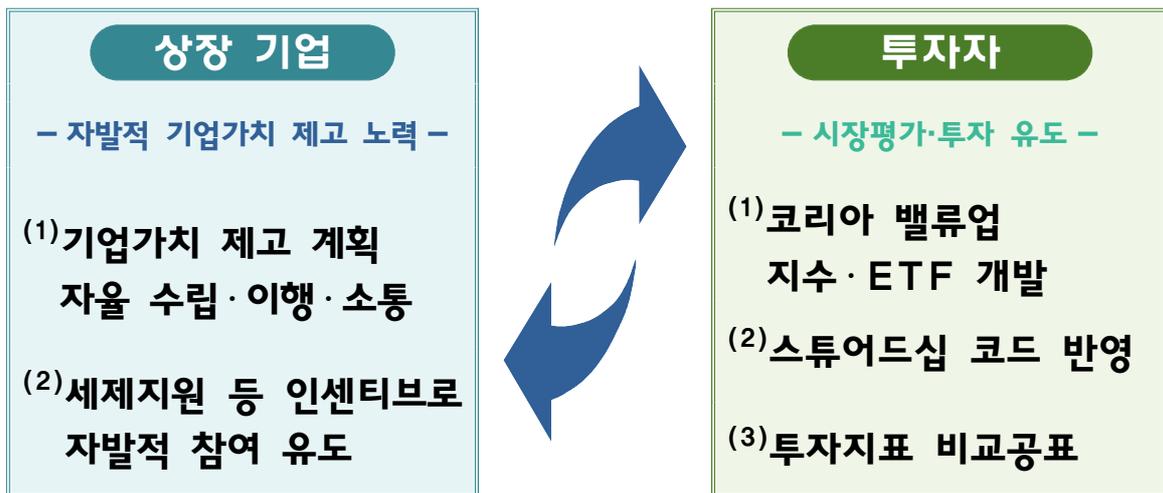
※ 日도쿄거래소 사례\*를 참조하되, 우리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 보완 및 참여 인센티브와 지원체계 강화

\* 「Action to Implement Management that is Conscious of Cost of Capital and Stock Price」

#### < 기본 방향 >

- ◆ 상장기업이 「**현황진단** → **목표설정** → **계획수립** → **이행·소통**」하는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 강화
- ◆ **주주가치 존중** 기업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적극 지원
- ➔ **기업가치 제고**와 **주주가치 존중 문화**가 확산될 수 있도록, 「**기업 밸류업 프로그램**」을 지속 보완·발전

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**자발적 변화**를 통한  
한국 증시의 **도약**



#### 거래소 및 유관기관

- 체계적인 상장기업 밸류업 확산 지원 -

- (1) 전담 추진체계    (2) 상장기업 교육·컨설팅    (3) IR·소통 강화

# 1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

◇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·이행하여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문화 확산 지원 →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·발전

## (1)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·이행·소통

[개요] 코스피·코스닥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·이행

- (대상) 코스피·코스닥 상장기업 전체(23말 코스피 809사, 코스닥 1,598사)
- (개요) 기업이 자율적으로 ①기업가치 현황을 평가·분석\*하여, ②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·공시·이행하고, ③주주와 소통

\* 기업상황에 적합한 지표(자본비용·자본수익성·시장평가 등)를 다면적으로 활용

[가이드라인] 공시 원칙·내용·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 제공

※ 이하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며, 2차세미나·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·추후 확정

- (기본원칙) 상장기업 ①스스로가 ②중·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③각 기업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·이행
  - ① 가이드라인은 권고로서 자율적 사항이며,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자발적·적극적 참여를 유도
  - ② 중·장기 자본효율성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\*
    - \* 기업 성장전략 등 중장기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실행방안에 중점
  - ③ 가이드라인은 종합적 작성 지침에 해당하며, 각 기업이 특수성·경제여건·업종상황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수립·공시
- (이사회 역할)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 관리의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

□ **(기재내용)** ①현황진단 → ②목표설정 → ③계획수립 → ④이행평가·소통

- ① **(현황진단)** 기업의 자본비용·자본수익성, 지배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기업가치가 적절한 수준인지 기업 스스로 평가
- ② **(목표설정)** 현황진단에 기반하여 자본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(3년 이상) 목표수준·도달시점 등 설정
- ③ **(계획수립)**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영전략·방안 및 추진일정을 수립하고, 목표-계획 간 연계성을 설명
- ④ **(이행평가·소통)** 계획 이행,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, 주주·외부투자자와의 소통\* 및 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
  - \*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양방향 소통강화 등을 포함
  - 매년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계획 수정

□ **(공시방법)** 연 1회 상장기업 홈페이지 및 거래소를 통해 자율 공시

- 연 1회가 기본이며, 2년차부터는 전년도 계획·이행 평가를 포함 (계획 등 변경시 연중에도 추가 수시 공시)
- 해외 투자자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한 영문 공시도 적극 권고
-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\*,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및 투자자 소통 노력을 추가 기재\*\*

\* '24년 자산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(22.末 488사) → '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

\*\* 공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URL과 함께 주요 공시내용 등을 요약 기재

**[시행] 5월 2차세미나 → 6월 가이드라인 확정 → 준비된 기업부터 참여**

□ **(시행시기)** 2차 세미나(5월) 이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, 금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한 상장기업이 자율 공시\*

\*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시기한을 설정하지 않되, 필요시 기업은 계획수립 일정 등을 미리 공표할 수 있음

※ [요조치사항]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제정,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('24.上)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('24.上)

## (2)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

### [인센티브] 세제지원 · 우수기업 표창 · IR 등 인센티브 적극 부여

- **(세제지원)**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
- **(표창)** 목표설정의 적절성, 계획수립의 충실도,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5월 “기업 밸류업 표창”
  - \* 예) 경제부총리상, 금융위원장상, 거래소 이사장상 등 약 10여개사
  - 표창이 실질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\*, “코리아 밸류업 지수” 편입 우대 등 혜택 제공
  - \* 5종 세정지원(모범납세자 선정 우대,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, 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 우대, 부가·법인세 경정청구 우대, 가업승계 컨설팅)
  - 수상 기업은 거래소 홈페이지·증권사 MTS 등을 통해 홍보하고, 거래소 공동IR\* 개최시 우선 참여 기회 제공
  - \* 희망기업 대상으로 투자자에 대한 기업 홍보기회 제공
- **(평가우대)** 적극 참여 기업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\* 선정 및 코스닥협회 코스닥대상 시상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
  - \* 상장수수료 면제,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유예 등 혜택 제공

### [안내·분석] 공시여부를 투자자에 안내하고, 매년 5월 백서 발간

- **(공시현황)**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현황 및 영문 공시 여부를 점검하여 거래소 홈페이지에 일목 요연하게 안내
- **(백서발간)** 매년 5월 밸류업 지원방안 참여·이행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, 실제 투자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분석(‘25년~, 거래소)
  - 밸류업 경영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선정사유, 우수 공시·이행 사례 등을 전파·확산

※ [요조치사항] 세제지원안 마련(‘24年中), 평가 우대(‘24년말), 거래소 홈페이지 개편(‘24.上), 표창 신설(‘25.5월), 백서발간(‘25.5월~)

## 2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

◇ 기업가치 개선노력과 성과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하고,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→ 자본시장의 환류기능 강화

### (1) 코리아 밸류업 지수·ETF 개발

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'코리아 밸류업 지수·ETF' 개발

- **(목표)** 지속적 수익 창출 및 주주 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에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["코리아 밸류업 지수"]
- **(특징)** 주요 투자지표\* 등을 종합 고려해 종목 구성
  - \* PBR, PER, ROE, 배당성향, 배당수익률, 현금흐름 등
  - 기업가치 우수 기업\*을 중심으로 하되, 계량·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\*\*도 편입
    - \* 수익성·시장평가 양호 기업    \*\* (예) "기업 밸류업 표창" 기업 등
- **(활용)** ETF·펀드 등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될 수 있으며,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·활용할 것으로 기대
- **(계획)** 자산운용사·기관투자자·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,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지수 개발(24.3분기)·ETF 출시(24.4분기)

※ [요조치사항] 거래소 지수 개발(~24.9월), ETF 출시·상장(~24.12월)

### (2)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

연기금 등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여 투자판단하도록 지침화

-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
  - \*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시장과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

### < 스튜어드십 코드 개요 및 관련원칙 >

- [개요]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지침(우리나라는 '16.12월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, 총 7개 원칙)
- [관련원칙 - 3]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

※ [요조치사항]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('24.上)

### (3) 주요 투자지표 비교공표

#### 각 기업의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제공해 투자자의 투자판단 지원

- (대상) 코스피·코스닥 상장기업 전체('23말 코스피 809사, 코스닥 1,598사)
  - (공표내용) 거래소 홈페이지에 투자판단에 널리 활용되고, 공시 내용을 토대로 산출 가능한 주요 투자지표 비교제공
    - 분기별로 PBR\*·PER\*·ROE(5월초, 6·9·12월말)를 공표하고, 연간 배당성향·배당수익률(5월초)은 연 1회 공표
- \* [참고] 선행 PBR·PER이 아닌, 공시 자료를 토대로 한 **현행 PBR·PER**

### < 주요 투자지표 설명 (☞ 참고2, 15p) >

- PBR(시가총액 ÷ 순자산) : 순자산에 대한 주가수준으로, 1 미만은 저평가로 인식
  - PER(시가총액 ÷ 순이익) : 순이익에 대한 주가수준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
  - ROE(순이익 ÷ 자기자본) : 자기자본을 활용해 1년간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판단
  - 배당성향(배당금 ÷ 순이익) :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, 주주환원 정도 파악
  - 배당수익률(배당금 ÷ 주가) : 현재 주가 대비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
- (공표방법) 시장별(코스피·코스닥), 업종별\*(23개)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·최근 5년간 투자지표 제공
- \* 글로벌산업분류기준(GICS)에 따른 분류(에너지, 자동차 및 부품, 금융서비스 등)

※ [요조치사항] 거래소 시스템 개발('24.上, 6월부터 개시)

### 3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

◇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·이행을 지원하는 전담 체계를 마련 → 중장기적으로 지속 운영·보완·발전

#### (1) 전담 추진체계 마련

상장기업·시장·전문가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업 전담 추진체계 마련

- **(전담부서)** 「기업 밸류업 지원방안」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거래소 내 전담부서(1부 2팀) 신설('24.2월)
  - 기업가치 제고계획 모니터링 및 정기 평가·분석 업무, 자문단 지원, 인센티브·지원 사업\* 운영 등 총괄
    - \* 조기 정착을 위해 시장 대표기업 등 타겟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집중지원
- **(자문단)**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평가·개선될 수 있도록 「밸류업 자문단」 구성('24.3월)
  - **(구성)** 상장기업(IR 담당자), 전문가(애널리스트, 연구원·학계), 국내외 투자자(국내외 IB·운용사, 핀플루언서), **유관기관**(상장협·코스닥협회) 등
  - **(기능)**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보완·업데이트, 밸류업 정기 평가보고서\* 검수(우수사례 검토), **시장반응 수렴**
    - \* 직전연도 1년간 상장법인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분석·평가
- **(통합홈페이지)**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현황 등 각종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「통합 홈페이지」 구축
  - **(방안)**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(KIND)에 탭 신설
    - \*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 공시시스템(DART),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링크 게시
  - **(기능)** 연도별 기업가치 제고계획, 투자지표, 우수사례 집적 등 **아카이브 기능**과 기업별 공개여부, 우수법인 공표 등 **홍보기능**

※ [요조치사항] 전담부서 구성('24.2월), 자문단 구성('24.3월), 홈페이지 구축('24.6월)

## (2) 상장기업의 자발적 공시 지원

### 공시 교육, 1:1 컨설팅 및 번역지원 등을 통한 상장기업의 밸류업 지원

- **(공시교육)** 상장기업 공시 담당 임직원에 대한 공시교육을 통해 밸류업 지원방안의 취지와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
  - 전체 상장기업 대상 공시 의무교육\* 프로그램 內 밸류업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전파('24.6월)
    - \* 공시 담당 임원은 매2년마다 4시간 이상, 담당 직원은 매년 8시간 이상 필수이수
- **(컨설팅·번역 지원)** 중·소규모 상장기업\* 대상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관련 1:1 맞춤형 컨설팅 및 영문번역 지원('24.6월)
  - \* (예) 시총 1천억원 미만[23년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24%, 코스닥 상장사의 48%]
  - **(컨설팅)** 업종 특징을 반영한 분석대상 지표 선정방법, 기업 공시사례에 대한 자문단 피드백 안내 등
  - **(영문번역)**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나, 영문 공시 역량이 부족한 기업\* 대상 영문번역 지원\*\*
    - \* 지원 희망기업 중 국문 계획의 충실성 등을 반영(자문단 평가 등)하여 선별
    - \*\* 전문 번역기관 영문번역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거래소가 전액지원

※ [요조치사항] 공시교육 및 컨설팅 시행('24.6월~), 영문번역 서비스 제공('24.6월~)

## (3) 참여유도를 위한 IR 지원 및 소통 강화

### 기업의 노력을 알리고 투자자 의견을 듣기 위한 상장기업 공동 IR 등 확대

- 기업 가치제고 계획과 이행노력을 공시하는 것에서 나아가, 적극적으로 국내외 투자자에 홍보하기 위한 IR을 지원
  - **(공동 IR 지원)** 희망기업 중심으로 거래소·유관기관 주관 “기업 밸류업” 공동 IR\* 개최
    - \* (참여)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, 자문단 선정기업 등

- (온라인·해외 홍보)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밸류업 우수기업을 홍보하는 온라인 콘텐츠 마련\* 및 해외 라운드테이블\*\* 개최

\* 일반투자자 대상, 유명 핀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유튜브 제작 등을 추진

\*\* 상·하반기 각 1회

### 주기적 상장기업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 참여 유도 지속

- 상장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\*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 간담회\*\* 지속 개최

\* 배당절차 개선 이행, 자사주 매입·소각 관련 구체적인 계획 공시 등

\*\* [거래소] 업종·기업규모별 그룹화하여 연중 개최

[상장협·코협] 밸류업 지원방안 인식제고 등을 위한 CEO·CFO 간담회 지속개최

※ [요조치사항] 온라인·해외 홍보('24.3Q~), 공동 IR 개최('24.4Q~), 상장사 간담회('24.上~)

## IV. 향후계획

### 2.26일 거래소 주관 1차 세미나를 통해 지원방안 공개 및 의견수렴

- (세미나) 2.26일, 거래소·자본연·상장협·코스닥협이 공동 주최하는 1차 세미나를 통해 “기업 밸류업 지원방안” 공개

### 5월 2차 세미나 개최, 상반기 가이드라인 확정 등 순차적으로 시행

- (가이드라인) 5월 중 2차 세미나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 의견수렴 → 상반기 중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추진
- (시행) 전담 추진체계 마련(2월), 홈페이지 구축(6월), 준비된 기업부터 공시(하반기~), 지수(3Q)·ETF 개발(4Q), 백서발간·표창(매년 5월) 등

➔ 기업경영 관행·문화로 정착되도록, 기업 대상 안내 강화 및 지속적 제도보완 ☞ 긴호흡을 가지고 중장기과제로 꾸준히 추진

## 참고2

## 투자지표 설명

: 분기별 공표

: 연1회 공표

투자지표	산출기준
<b>PBR : 주가순자산비율</b> (Price Book value Ratio)	시가총액 : 공표 직전일 종가 반영 <hr style="width: 20%; margin: 5px auto;"/> 순자산 : 최근 분기말 기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순자산(자기자본)에 대한 상대적 주가수준 → 재무상태 대비 시장평가 판단에 참고가능</li> <li>- 특히 1 미만일 경우, 회사 청산시 주주가 받게 되는 자산가치보다 현재주가가 낮다는 뜻이므로 통상 저평가 상태로 인식</li> </ul>	
<b>PER : 주가이익비율</b> (Price Earnings Ratio)	시가총액 : 공표 직전일 종가 반영 <hr style="width: 20%; margin: 5px auto;"/> 순이익 : 최근 4개 분기 합산 (ex. '24.9월 공표시 '23.3Q - '24.2Q 순이익 합계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순이익에 대한 상대적 주가수준 → 수익성 대비 시장평가 판단에 참고가능</li> </ul>	
<b>ROE : 자기자본이익률</b> (Return on Equity)	순이익 : 최근 4개 분기 합산 (ex. '24.9월 공표시 '23.3Q - '24.2Q 순이익 합계) <hr style="width: 20%; margin: 5px auto;"/> 자기자본 : 최근 1년 평균 기준 (ex. '24.9월 공표시, '23.6월말과 '24.6월말 평균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기자본을 활용해 1년간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창출했는지 판단하는 지표</li> <li>→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서 <b>경영효율성</b>을 가늠하는 척도</li> </ul>	
<b>배당성향</b> (Dividend Payout Ratio)	배당금 : 최근 사업연도 기준 <hr style="width: 20%; margin: 5px auto;"/> 순이익 : 최근 사업연도 기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금의 비율로 <b>주주환원</b> 관련 참고지표</li> <li>-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많이 돌려줌을 의미</li> </ul>	
<b>배당수익률</b> (Dividend Yield)	배당금 : 최근 사업연도 기준 <hr style="width: 20%; margin: 5px auto;"/> 시가총액 : 공표 직전일 종가 반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 주가로 매입하여 1년간 보유할 경우의 배당수익을 가늠하는 지표</li> </ul>	

□ **(개요)** 도쿄거래소(이하 'JPX')는 '22.4월 「시장체제 개편」\*을 단행

\* 5개 시장을 3개 시장[프라임·스탠다드·그로스]으로 통합개편 + 상장·유지  
요건 강화('25.3월부터 적용예정)

○ 이후 시장체제 개편사항의 원활한 정착 및 기업가치 상승  
을 통한 투자처로서의 매력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진행중

□ **(추진경과)** '22.7월부터 '팔로업 회의'\*를 통해 주요 추진과제  
설정 및 이행을 위한 논의 진행중

\* 학계·업계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과제발굴·필요조치 검토 등

○ '23.3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「자본효율성·주가를 고려한  
경영」을 포함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

< JPX 추진과제 주요내용 >

1	자본효율성· 주가를 고려한 경영	프라임·스탠다드 상장법인 대상 자본효율성 등을 매년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및 진행상황 공시하도록 요청 (☞ 참고5, 26p)
2	기업지배구조의 질 향상	Comply or Explain 제도의 이행이 미흡한 상장법인 대상 개별 지도 등 보완 요청 등
3	주주와의 대화 강화	투자자와의 의사소통 강화를 독려 - 특히, 프라임 상장법인 대상 의사소통 내용의 공시를 요구
4	영문공시 확대	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확대 독려 - 특히, 프라임 상장법인 대상 추후 개별 지도 예정(프라임 상장법인의 영문공시 의무화는 '25.3월 이후 실시예정)

○ 한편, 기업가치 제고 노력 독려를 위해 신규지수(JPX Prime 150  
지수) 출시('23.7월) 및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장('24.1월)

< JPX 프라임 150 지수·ETF 개요 >

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[개요] JPX 프라임 시장 상장사 중 자본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높은 150개 기업으로 구성(시총 상위 500개 기업 중에서 선정)</li> <li>· [종목구성] ①자본효율성 상위 75 종목(판단기준 : ROE) + ②지속가능성 상위 75 종목(판단기준 : PBR 및 시가총액)</li> </ul>
ETF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[명칭] ifree JPX prime 150 ETF</li> <li>· [운용사] 다이와자산운용 / · [AUM, '24.1월말] 약 107억엔(약 961억원)</li> </ul>

- **(목적)** 자본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

\* 자사주 매입, 배당확대 정책만을 채택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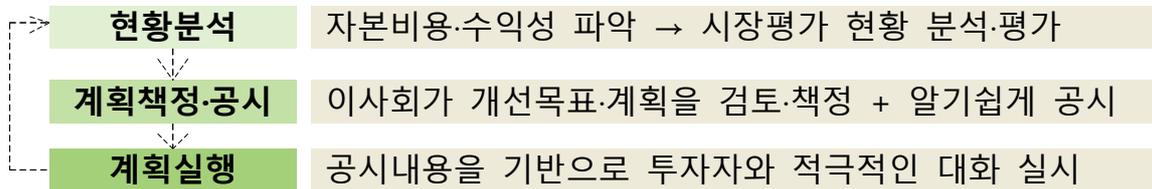
- **(대상)** 프라임·스탠다드 쉰 상장법인\*

\* PBR 등 특정 투자지표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지 않음

- **(권고내용)** 주가·자본효율성을 고려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「현황분석 → 계획수립·공시 → 실행」의 단계적 이행을 권고\*

\* 자율사항이며, 연 1회 이상 공시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안내

< JPX 자본수익성 개선계획 안내사항 세부내용 >



- **(양식)** 별도 양식이 없으며, 경영전략·계획·재무실적 발표 자료, 홈페이지 등에 포함하는 등 자율적으로 공표\*하도록 안내

\* 단, 투자자가 공표내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접근방법(웹사이트 URL 등) 등을 기재하도록 요청

- **(공시시기)** 정해진 시한은 없으나, 최대한 빠른 대응을 요청

- 주요 변동사항 발생시 공시사항의 즉각적인 업데이트 필요

- **(페널티 여부)**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것으로, 계획 미공시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(상장폐지 등) 없음

※ '24.2월 투자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업 공시내용 중 참고 사례 및 공시 관련 유의사항\*을 정리·배포

\* PBR이 1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선계획의 도출이 필요없다는 결론 지양, 매출·영업이익 분석에 그치기보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수익성 분석 필요 등